

종돈 수송 및 농장 도착 후 관리요령

I. 머리말

종돈(種豚)이란 문자 그대로 씨돼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순종돼지로 통하지만, 번식을 위한 잡종모돈을 잘 확보하여 각종 교배방법으로 돈육의 양과 질을 증가시키자는 것이 바로 양돈가의 희망이자 최대목표가 된다. 또한 입식(入植)되는 종돈은 그 농장의 간판이자 대들보로써 앞으로 농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신중(慎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최 진 성 과장
축산기술연구소 중소기축과

이와같이 종돈의 선택과 사후관리가 양돈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도 일부 양돈가에서는 종돈의 정확한 선발과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개방과 더불어 최근에는 구제역, 돈콜레라 등의 악성전염병 발생으로 우리 양돈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큰 실망과 걱정에 쌓여 있다.

더구나 계절적으로 여름철 고온기를 맞아 돼지에게는 그야말로 지옥같은 계절을 맞았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맞아 양돈경영상 무엇보다 중요한 종돈의 구입 및 수송방법과 농장 도착 후 관리 요령에 대하여 서술코자 한다.

II. 종돈 판매 및 구입전 준비

요즘같이 기온이 높아 덥고 불쾌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돼지에게도 매우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어

전국으로 만연(漫然)되고 있는 구제역, 돈콜레라, PRRS 등의 질병예방에도 대비 해야 한다.

1. 종돈 분양전 준비사항

종돈 분양은 구매자가 직접 보고 선발해 가는 경우와 종돈장에 주문하면 분양담당자가 선발 후 수송해 주는 경우가 있다.

구매자가 종돈장을 직접 방문시는 방역상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직접 방문시와 종돈 출고전 준비사항을 알아보자.

가. 종돈장에서 준비할 사항

① 구매자 방문시 주의점

- 분양돈 경매장소로 기존 돈사와 분리된 분양사를 두어 방역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 종돈 구매자만 출입토록 해야 한다.

- 방문자에게 소독된 방역복을 착용토록 하며, 가능한 탈의실에서 갈아 입도록 한다.

- 소독된 장화나 1회용 비닐신발을 신도록 하며, 깨끗한 모자를 착용하도록 한다.

- 출입시 소독조에 신발을 담그고 분무소독 한다.

- 내부시설물과 땅을 우려(憂慮)가 있는 출입자의 손은 독성이 없는 소독수로 씻도록 한다.

- 돈사출입시에는 조용히 하여 돼지가 놀라지 않도록 한다.

- 돈사통로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돼지의 분뇨가 떨어져 있지 않게 한다.

② 종돈 출고전 준비사항

- 수송 바로전 사료급여는 절식하며, 수송스트레스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분양돈의 백신접종 상황이나 건강상태를 미리 체크하여 구매자에게 관리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분양돈 신상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 수송스트레스와 사료교체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겪지 않도록 분양전 급여하던 사료를 교체용으로 공급한다.

- 구매자가 주문하고 종돈장 분양담당자가 선발 수송해 주는 경우 기본선발원칙하에 하자(瑕疵)가 없는 종돈을 미리 체크한 뒤 표시해 두었다

가 수송 당일 한번 더 점검토록 한다.

나. 구입 양돈장에서 준비할 사항

① 종돈 구입량과 시기의 결정

종돈의 구입량과 시기는 일반적으로 그 농장의 번식계획과 규모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대체로 번식모돈의 30~40% 정도 도태되어 교체해야 하고, 웅돈은 사용후 24개월 또는 연령으로 3년이 지나면 도태하고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종돈의 상태와 수급상황을 잘 검토하여 사전에 후보돈 보충에 필요한 시기를 파악하고, 구입할 종돈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종돈장의 선정

종돈의 도입은 돼지의 능력뿐만아니라 종돈장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함께 들여오게 되므로 여러장소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는 위생적으로 깨끗한 1~2개의 종돈장을 잘 선정하여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종돈장의 선정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수 종돈장의 조건

- 원하는 종돈의 품종과 특성은 갖추고 있는가?
- 구입하고자 하는 종돈의 능력은 우수한가?
- 종돈장의 위생상태는(위생등급)은 어느정도 인가?
- 종돈장의 사후관리(A/S) 보장 받을 수 있는가?
- 앞으로 계속적으로 종돈을 구입할 수 있는가?
- 종돈장의 핵군의 능력은 계속 개량되고 있는가?

2 종돈의 입식전 준비

가. 격리돈방의 준비

종돈을 구입하자마자 즉시 기존돈군과 합사하여 사육하게 되면 기존돈군이나 도입되는 새로운 종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재성 질병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개체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나아가 농장 전체가 질병에 오염(汚染)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그러므로 도입되는 새로운 종돈이나 기존돈군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 항체를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1개월 이상 격리사육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기



▲종돈을 구입한 농가는 적어도 종돈 입식 1주일 이전에 수세, 소독하여 격리돈방을 준비한다.

존돈군과 환경조건에 서서히 적응훈련을 하므로써 사고를 미연(未然)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격리돈방은 기존돈군과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이 좋으며, 수돼지는 두당 1개방, 암돼지는 방목장이나 군사돈방으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한다.

군사돈방의 경우 후보 암돼지의 수용두수는 평당 1~1.5두, 한그룹당 6두 이하로 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하고 안전하다.

나. 격리돈방의 수세, 소독

격리돈사의 수세, 소독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어도 종돈입식 1주일 이전에 수세, 소독하여 그동안 비위

두는 것이 좋다.

소독은 수세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소독시에는 부대 시설, 관리기구 등도 같이 소독한다. 방목장은 생석회를 뿌린다음 30cm정도 갈아엎어 소독하게되면 매우 효과적이다.

Ⅲ. 종돈 수송운반과 농장 도착시 관리

요즘같이 한낮의 기온이 30℃까지 올라가고 아침, 저녁에는 낮아져 일교차가 심하고, 우기(雨氣)로 인한 습기가 많아 불쾌지수가 높으며, 특히 최근 악성전염병 발생으로 소독이 강화되고 있는 바 이런 경우에 돼지는

한층더 환경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이동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1. 종돈의 수송운반

새로 구입한 돼지는 운송중의 스트레스, 상해(傷害) 또는 질병의 피해를 없게 하므로써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 구입되는 종돈은 수송상의 스트레스와 환경변화, 관리방법의 급변 등으로 인하여 항병력(抗病力)이 떨어지고, 일시적인 번식상의 장애요인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새로 구입한 돼지를 운송할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① 수송차량을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② 차량의 바닥에는 돼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름에는 젖은 깔짚, 톱밥, 모래 등을, 겨울에는 깨끗한 볏짚을 깔아 주고, 비나 눈에 대비한 보호대 책으로 호루를 씌워서 차내를 시원하고 따뜻하게 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혹서기에는 더위를 피하여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

을 이용할 것.

③ 수송할 돼지는 과식(過食)을 피하고 상차하기 2-3시간전에는 사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운송차량은 안전하게 포장된 도로를 택하여 운송할 것이며, 급정거 시키거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차량을 흔들여 돼지에 스트레스가 가중(加重)되지 않게 할것.

⑤ 차량당 적재두수는 돼지의 체중에 준하여 너무 과밀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여름철은 겨울보다 공간이 다소 있도록 하며, 대개는 체중 60kg 돼지를 기준으로하여 1톤 차량은 10~12두 정도가 알맞다.

⑥ 수송 중 서로 싸울 가능성이 있는 수퇘지를 동일 차량에 수송할때는 나무 등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격리 수용시켜 안전하게 수송할 것.

⑦ 특히 요즘같은 고온기에는 수송차량 바닥에 시원한 물을 뿌려서 돼지와 차량에서 발생하는 더위(열기)를 식혀야 하며, 가능한 차량에 선풍기나 환풍기를 설치하면 매우 효율적이다.

2. 도착후 돼지관리와 사료 급여

새로 구입한 종돈은 기존 사육중인 돼지와 완전히 분리 독립된 돈사에 입식하여야 하며, 입식된 종돈의 환경적응기간은 4주 정도이며, 최소한 4~5주는 격리사육해야 한다.

격리돈사는 통풍이 잘되고, 건조하며, 깔짚을 깔아주는 등 보온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잠자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종돈이 안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분양전 급여하던 사료와 현재의 사료를 교체할시 최소한 1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시하며, 처음에는 분양전사료를 전량급여하다 점차 줄여줌과 동시에 현재의 교체사료를 증량급여해 준다. 이때 식욕을 돋우기 위해 전해질 제제를 주거나 항생제 첨가도 가능하다.

① 농장에 도착 즉시 준비된 격리축사에 안정시키고, 물을 충분히 준다.

② 새로 구입된 돼지는 농장의 기존 돼지와 합사나 군

사(群飼)등의 접촉을 금할 것이며, 1개월 이상 격리 사육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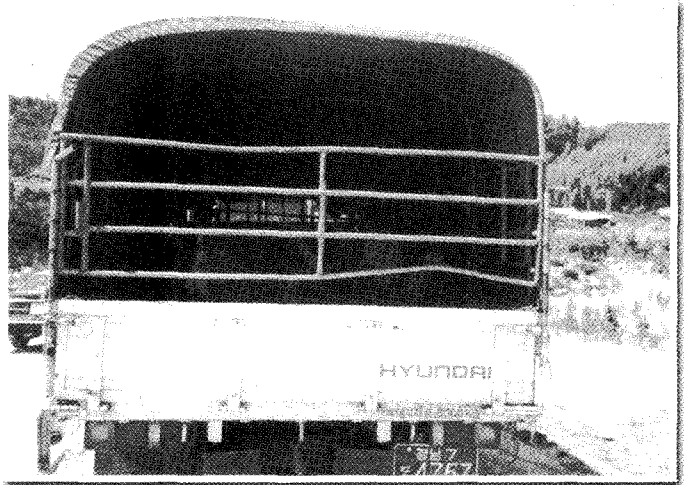
③ 구입종돈에 대하여는 각종 전염성질병에 대한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격리사육 기간중 돈콜레라, 오제스키병, 부루셀라, 돈단독 등에 대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입식 2주후에는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④ 구입 종돈을 군사 사육시에는 매일 오전, 오후 두차례씩 사료급여 때 개체별 건강상태, 발정여부, 채식상태, 분노 등을 점검하여 이상축은 즉시 격리수용하여 치료토록 한다.

⑤ 새로 구입된 종돈은 광범위 종합영양제와 구충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내부기생충을 철저히 구제한다.

⑥ 구입된 종돈은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정도 회복된(구입후 약 1주 정도 경과)후에는 약욕(藥浴)을 시키거나, 욕, 이 등의 외부기생충을 구제하여 준다.

⑦ 구입된 종돈의 사료는 소화되기 쉬운 저지방 사료를 1일 2~3회로 나누어 자주 급여하여 사료채식과 소화율에



▲종돈을 수송운반하는 차량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젖은 깔짚, 톱밥 등을 깔아준다. 또한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도록 한다. 특히 이때 더위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신선한 청초(크로바 등)를 급여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⑧ 요즘같은 고온기에는 암돼지는 발정율이 떨어져 수태율이 낮아지고, 수태지는 조정기능 저하로 불량 정자가 생산되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격리돈사와 방목장에는 냉풍기와 샤워 시설을 갖추어 실내온도를 낮추어 준다.

3. 새로운 환경적응 훈련

어떤 종돈이라도 그 개체고

유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병균들이 때로는 생산력을 저하시킬 우려(憂慮)가 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동안은 면역성(免疫性)을 길러주도록 적응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격리수용이 끝날 무렵부터 2~3두의 종돈을 기존돼지 그룹에 합사시켜 환경순치와 더불어 위생방역 점검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양돈**